



김학수

한국체육대학교 초빙교수
스포츠저널리즘 전공
스포츠미디어와 스포츠역사에 관심
kimbundang@hanmail.net

일본 검도와 메이지 유신 영웅 사카모토 료마

일본에서 1964년 도쿄올림픽의 역사적 의미는 한국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비슷하다. 도쿄 올림픽은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흔들린 일본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의 6·25 전쟁 특수로 호황을 맞으며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던 무렵, 일본 국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일깨우는데 크게 기여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해방과 전쟁, 4·19와 5·16의 혼란기를 거치면서도 무에서 유를 창출하며 경제적 부흥을 이끈 한국의 국민통합과 민주화에 이바지했듯이 말이다.

감정적으로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과 한국이 나란히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민적 단합을 이루었으면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었다. 일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꾀하며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최고의 역사적 영웅 신화를 연출하는데 성공한 반면, 한국은 서울올림픽을 전후해 역사에 기억될 만한 민족적인 영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일본 전통 의상의 하오리(羽織) 상의와 하카마(袴) 하의 차림으로 날카로운 눈매를 빛내며 칼을 차고 당당한 포즈를 취한 육척 장신의 무사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그를 대표하는 사진으로 현재까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일본을 상징하는 메이지 유신의 전형적인 무사형의 모습이다. 일본의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대표적인 대하역사 소설 '료마가 간다'는 도쿄올림픽을 전후해 사카모토 료마를 일본 메



지 유신의 영웅으로 확실히 자리잡도록 했다. 1962년 6월부터 1966년 5월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지 '산케이 신문'에 연재된 이 소설은 그때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무사를 일본 역사의 최고 인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시바 료타로를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올려놓았다. 소설 작품을 통해 한 인물이 국민의 역사적 영웅으로 자리잡은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료마가 간다'의 대성공이후 NHK에서 2010년 48부작 대하드라마 '료마전'을 방영해 매회 20%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 '료마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수년 전 독자 여론 조사에서 선정한 일본 1000년간의 역사인물 인기투표 순위에서 사카모토 료마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

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를 물리치고 당당하게 1위에 올랐다. 일본에서 사카모토 료마의 면모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더 사랑을 받는 신화와 같은 존재이다. 일본 IT산업 경영의 귀재 재일동포 손정의(孫正義 · 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은 순탄하지 않은 미국 생활에서 밤마다 '료마가 간다'를 읽었다고 한다. 중학교 때부터 사카모토 료마를 좋아하여 미국에서 힘들 때마다 이 책을 가까이 두고 꺼내 읽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사카모토 료마가 손정의 회장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한 일례이다.

1996년 세상을 떠난 시바 료타로는 생전에 사카모토 료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료마만이 파격적이었다. 이러한 유형은 에도 막부 말기, 유신 때 생존했던 수천의 지사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유례도 찾아볼 수 없다. 일본 역사가 사카모토 료마를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다. 왜냐하면 하늘이 이 기적적인 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역사가 바뀌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일본 역사가 소유하고 있는 '청춘' 가운데 세계 어느 민족 앞에 내놓아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청춘은 사카모토 료마밖에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의 변방에 속한 시코쿠 섬 도사현의 하급무사로 태어나 출신 성분의 콤플렉스를 갖고서도 일본 역사에 보기 드문 독창력과 놀라운 행동력으로 메이지 유신의 기틀을 마련하고 33살의 짧은 생을 산 풍운아였다. 시바 료타로의 소설은 료마가 태어나서 메이지 유신의 성공 발판을 만들기까지의 이야기로 문학과 역사를 넘나드는 언설을 담아 일본인들을 매료시켰다. 물론 대하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유명한 야마오카 소하치가 '사카모토 료마'라는 소설로 그의 일대기를 그렸지만 시바 료타로의 것보다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사카모토 료마가 한국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도 시바 료타로의 소설 때문이었다. 그는 풍부한 자료 제시와 문헌 연구, 관련자 인터뷰 등과 소설의 창작 기법을 가미하면서 사카모토의 삶을 현실감있게 구현시켰다. 그의 소설을 통해 사카모토가 검술과 무술을 통해 성장하고 ‘일본 메이지 유신의 호걸’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시바 료타로의 작품과 함께 사카모토와 관련한 여러 역사적 자료와 책을 통해서 일본화, 근대화, 세계화의 의식을 빨리 깨우친 그의 뿌리가 일본 검도라는 사실에 큰 흥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 글은 사카모토 료마가 검도를 배우면서 일본 근대화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으며, 메이지 유신의 기틀을 마련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변모했는지를 시바 료타로의 ‘료마가 간다’ 소설과 역사적 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 검도가 사카모토 료마를 비롯한 젊은 지사들에게 어떤 의식과 정신을 심어줘 일본의 근대화를 성공시킬 수 있었는지를 캐보려고 하는 것이다.

시바 료타로와 사카모토 료마의 발자취를 찾아서

나는 한때 역사학도를 꿈꾼 스포츠 저널리스트로서 스포츠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싶었다. 현재 스포츠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실제적이고 실재적으로 파악하려는 생각을 갖게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서는 일본에 대해서는 감정에 흔들려서 평가하려고만 했지 제대로 분석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부터도 일본의 근대사에 대해서 정식으로 알아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백제 시절부터 찬란한 문화를 일본에 이식시킨 뒤 임진왜란, 식민통치 등으로 이어진 한일관계의 오랜 역사는 우리의 또 다른 단면이기도 했는데 말이다.

대학교 은사인 한일근세사 전문가 고 이광린 교수(서강대)로부터 메이지 유신의 역사를 배웠다. 조슈와 사쓰마, 도사번 사무라이 지사들이 주축이 돼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면서 일본은 근대국가를 거쳐 세계적 강국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을 한국 근세사와 함께 접할 수 있었다. 대학교를 졸업 후 오랫동안 스포츠 기사를 하면서 일본 취재를 여러 차례 다녀왔으면서도 일본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했지,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수년 전부터 일본 역사소설의 대표적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 요시카와 에이지, 시바 료타로의 대망시리즈 36권을 완독하면서 일본 메이지 유신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생겼다.

일본인들은 시바 료타로라는 국민작가의 소설을 통해 일본 유신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사카모토 료마가 어떻게 메이지 유신을 이끈 선각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적같은 얘기를 자세히 알게됐다. 소설을 계기로 사카모토 료마의 명성은 일본인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원지지 않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일본인들은 그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함께 그를 일본 역사 최고의 인물로 꼽았다.

올해 회갑 기념으로 가족들과 함께 지난 6월 말 떠난 일본 여행은 사카모토 료마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시바 료타로의 생가와 사카모토 료마의 활동무대와 암살장소와 묘지 등이 있는 오사카와 교토로 행선지를 정했다. 오사카, 교토로 떠난 일본 여행은 두 인물에 대한 본격적인 탐방 코스였

다. 사카모토 료마를 탐구하기 위해선 소설을 통해 그의 진면목을 잘 살려낸 소설가 시바 료타로에 대해 먼저 알아야 했다. 시바 료타로의 발자취를 먼저 찾아가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 때문이다. 오사카가 고향인 시바 료타로의 생가이자 문학기념관을 찾았다.

오사카가 고향인 시바 료타로의 생가이자 문학기념관을 찾았다. 료타로는 오사카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후쿠다 데이이치이다. 1943년 오사카외국어대학 몽골어과를 졸업하였다. 1948~61년 산케이신문사에 근무, 여러 편의 역사소설을 쓴 그는 1960년 ‘올빼미의 성(城)’으로 나오키상 수상, 1966년 장편소설 ‘료마가 간다’로 기쿠치칸상을 수상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본의 국사’라고 불리는 그는 한국에도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작품을 쓰는 것으로 소문난 그는 “트럭 1대분의 자료를 들고 소설을 쓴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료 수집에 철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한 듯 ‘사마료태랑’이라는 필명도 ‘사기’의 저자 사마천에 다다르려면 아직 멀었다(遼 요원하다)는 뜻으로 지었다고 한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을 찾는 것은 스마트폰 앱으로 간 ‘구글 맵’ 덕분에 별로 어렵지 않았다. 오사카의 중심인 오사카난파역에서 긴테쓰 나라선을 타면 9개 정지장, 시간으로 20여분 밖에 걸리지 않는 야에노사토역 근처에 그의 생가점 기념관이 있다. 야에노사토역에서 내려 일본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의 집과 거리의 풍경을 보면서 도보로 10분 정도 가니까 시바 료타로 기념관이 나타났다. 생가를 넓혀 만든 시바료타로 기념관의 입장료는 500엔인데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면 시바 료타로 생가가 있고, 생가 앞으로 정원이 잘 꾸며져 있다. 생가 거실은 창문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생전에 그가 앉아 여러 책을 읽으며 작품 구상을 했

던 의자와 책이 있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지은 곡선 모양의 유리벽 통로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기념관 입구에 이른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면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으며 시바 료타로가 생전에 보았던 책 수만권을 정리한 거대한 책장이 지하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벽면을 장식했다. 기념관안은 사진 촬영이 금지됐다.

그의 기념관은 지난 1996년 복부동맥류 파열로 향년 72세로 사망한 이후 생전 업적을 기리고자 2001년 생가를 포함해 건립되었다. 평소 그의 책과 사카모토 료마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한국인 관광객도 자주 방문한다. 내가 갔을 때도 몇 명 되지 않은 방문객 중에 70대의 한국인 노부부가 있었다.



시바 료타로 기념관에 이어 다음 코스는 교토였다. 한국의 경주적인 교토는 천년 고도시답게 차분하고 조용한 ‘명상의 도시’였다. 수많은 사찰과 신사, 역사적 유적지 등이 산재해 있어 마치 도시 전체가 종교와 역사의 향을 진하게 풍겼다. 오사카 도심 우메다역에서 한류 전철을 타고 교토로 향하는 길은 마치 한적한 우리나라의 서울 근교로 나가는 전철을 타는 느낌이었다.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전철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오사카와 교토 사이의 소도시에서 사는 일본인들이 역마다 타고 내리는 모습에서 평범한 일본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50여년전, 교토는 건드리면 폭발하는 테러와 모험의 도시였다. 사카모토 료마와 같은 지사들이 교토에 들어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다. 그 당시 실제 분위기는 막부를 타도하고 왕정복고를 이루며 근대화 추진을 통해 새로운 일본을 건설하려는 사카모토 료마 등으로 대표되는 지사들과 막부파를 지지하는 암행정찰격인 신센구미, 미마와구리구미 등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사카모토 료마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이케다야(池田屋) 사건, 막부가 안티 쇼군, 막부 타도를 부르짖는 존왕양이의 조수한 지사들을 급습했던 데라다야(寺田屋), 오우미야(近江屋) 사건 등이 일어나며 젊은이들이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했고, 그도 끝내 암살자의 칼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곳이 교토이다.

먼저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당했던 여관인 오우미야(近江屋)를 찾았다. 교토 중심지인 카와라마치역에서 내려 산조방면으로 가다보면 의류브랜드 매장 H&M이 있고 조금 더 가다보면 오우미야 자리가 나온다. 현재는 스시집 옆에 들어서 있으며 앞에 그가 같은 고향 사람인 도사한 지사 나카오카 신타로와 함께 여기서 암살당했다는 표지석에 서 있다.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당한 오우미야 유적지

시바 료타로는 ‘료마가 간다’ 10권 ‘오우미 길’ 편에서 그의 마지막 모습(1867년 12월10일)을 이렇게 표현했다. ‘지바 문화의 수재로 천하에 명성을 떨친 자신이 좀도둑 같은 자객에게 기습을 당하고, 더구나 칼 한번 휘둘러보지도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하늘이 이 나라 역사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 젊은이를 지상에 보냈고, 그 사명이 끝나자 서슴없이 하늘로 다시 데려갔다. 그날 밤 교토의 하늘은 잔뜩 찌푸린 채 별 하나 없었다. 그러나 시대는 선화하고 있다. 료마는 그 역사의 문을 자기 손으로 열고 또 미래를 향해 밀어 올렸다’로 장편역사



소설의 끝을 맺었다.

사카모토 료마와 나카오카 신타로가 암살당한 이후 도사한에서는 그 배후를 캐었는데, 이 당시 대부분의 지사들이 신센구미의 소행이라고 했으나 미마와리구미의 암살로 굳어졌다.

사카모토 료마와 나카오카 신타로의 묘지는 암살당한 곳에서 가까운 교토의 대표적인 사찰인 청수사(키요미즈데라) 가까운 곳, 료젠(靈山) 역사 박물관 뒤편의 료젠 호국신사에 있다. 둘이 나란히 묻힌 표지는 소박했으며, 묘비는 오랜 세월에 빛이 많이 바랬다. 사카모토 료마와 관련해 역사의 현장인 이케다야, 데라다야 사건의 현장도 찾았다.

이케다야 사건은 1864년 7월 8일 교토의 산조 기야마치 길(木屋町通り)에 있던 조슈 번 전용여관 ‘이케다야’에서 신센구미가 조슈 번, 도사 번의 존황양이파를 습격하였던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조슈 번의 많은 대포급 인사들이 살해당했고, 일본 메이지 유신이 1년 늦춰졌다는 평가였다. 시바 료타로는 이케다야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이 없었다면 메이지 유신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카모토 료마는 조슈 번, 사쓰마 번 등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한 두 번의 동맹과 왕정복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됐다. 메이지 유신의 큰 고비가 된 이케다야 사건이 발생한 옛 건물에는 기념물이 서 있다.

데라다야 사건은 사카모토 료마가 저승사자를 만날 뻔했던 ‘암살미수사건’이다. 교토 남쪽 후시미에 있는데 지하철 타고 주쇼지마역에서 아주 가깝다. 교토 중심지에서는 남쪽으로 꽤 먼 편이나 당시에는 오사가 등으로 나가는 나루터 길목이었다. 수로를 통해 오사가 등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 여관이 많았다. 지금의 교토역의 역할과 같았는데 데라다야는 사쓰마 전용여관이었다. 료마는 주로 여기 묵었다. 1866년 1월 23일, 이날 막부군들이 야밤에 급습했는데 료마는 애인의 기지로 창문으로 뛰쳐나가 뒷문으로 탈출해 구사일생



으로 목숨을 구했다. 당시 료마가 머물던 방에는 그의 초상화 등이 전시되어 있고, 칼자국 등이 그대로 있어 눈길을 끈다.

사카모토 료마가 암살미수사건으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데라다야에는 칼자국 등이 아직 보존돼 있다.

일본 검도의 실체

역사에 가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만약 사카모토 료마가 일본 개화기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지 않았다면 당대 최고의 무사로 등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시바 료타로는 ‘료마가 간다’ 취재 여행 중에 료마가 지바 가문으로부터 받은 호쿠신잇토류(北辰一刀流)의 인증서에 대한 기록 일부를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료마가 간다’ 후기에서 이 인증서는 메이지 이후 료마 친척들 사이에서 전전하고 있었는데, 1920년에 그 마지막 소유자가 미국에 건너가면서 그의 기록도 함께 가지고 갔다고 밝혔다. 시바 료타로에 따르면 그 소유자와 연고가 있는 여성이 일본에 와서 료마의 고향인 고치의 현청을 찾아가 영구 보존 의뢰를 했는데, 다른 자료를 참고하려고 현청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1857년, 료마는 호쿠신잇토류의 가장 높은 자리인 다이모쿠로쿠(大目録)의 인증서를 받고 지바 도장의 주쿠토(熟頭, 문하생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자리는 수많은 에도의 검객 중에서도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었다. 그무렵 조슈의 가쓰라 고고로(桂小五郎)는 고지마치(麴町)에 있는 사이토 야쿠로(齋藤彌九郎) 도장(신토무넨류 神道無念流)의 주쿠토이고, 도사의 다케치 한페이타는 교바시(京橋) 아사리 강변의 모모노 이쥬조(桃井春藏) (교신묘치류 鏡心明智流)의 주쿠토에 올라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는 모모노이, 기예는 지바, 힘은 사이토라고 일컬어진 시대였다고 시바 료타로는 책에서 밝혔다.

당시 일본 최북단 북해도에서부터 최남단 가고시마 사람들까지 워낙 사투리가 심해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였다. 종이를 꺼내 글로 대화를 나눌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검법도 지방마다 달랐다. 사쓰마 번의 검법시현류 유파는 당시에 주로 쓰이던 호구나 죽도는 사용하지 않고 목도로 연습한다. 게다가 그 연습법도 여러 오래된 유파들과는 달리 독특했다.

오늘날 수많은 검술 유파가 있지만 기원을 따져보면 모두 노부쓰나의 신카게류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이것이 후대인들이 그를 ‘검성’으로 추존하는 가장 큰 이유다. 일본 전국시대 등 대부분의 시대에서 특출한 재주를 가진 이들은 모두 어떻게든 교토로 가서 두각을 나타내고자 했다. 일본 역사의 대표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의 일생에서 가장 유명한 결투 장면은 요시오카 형제, 간류지마와 관련이 있는데 교토를 중심으로 무술대결이 이루어졌다. 더욱이 간사이 최고의 검술문파에는 요시오카 가문이 있었다.

막말 에도 3대 도장으로서는 죽도 대련에 중점을 둔 경심명지류(鏡心明智流)의 본부도장인 사학관, 신도무넨류(神道無念流) 연병관(練兵館), 북진일도류(北辰一刀流) 현무관(玄武館) 등이 손꼽혔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계승이 끊겼다. 본래부터 죽도 대련 위주의 유파였던 탓에, 현대 검도의 성립 과정에서 흡수되어

유파의 형태를 소실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료마가 배운 잇토리류(一刀流)는 이토 잇토사이가 창시한 검술이다. 다만 잇토사이는 생전에 일토리는 물론 유파명 자체를 칭한 적이 없고, 후대에 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신토류, 카게류와 함께 고류 3류 중 하나로 불리며, 각각 신토와 선불교 요소가 섞인 두 유파와 달리 기독교적 요소가 섞였다. 검술에 현학적 요소를 배제하고, 검은 어디까지나 살상 무기라는 입장을 취한 합리적이면서도 섬뜩한 유파다. 현대에는 여기 저기서 검 두 자루를 사용하면 이도류라고 부르는 통에, 검 한 자루를 사용하면 일도류라고 해 ‘하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북진일도류가 일본 현대 검도의 직접적인 모체가 되었기에, 다른 고류 유파들보다 일도류 계열이 현대 검도와 더 유사하다.

일본은 일찍이 ‘무사의 혼백은 신이 되어 나라를 지킬 것이다’는 신념을 고취시키며 많은 검사를 양성했다. 료마도 처음에는 열렬한 전통 무술에 입각해 외국의 일본 유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양이론의 무사로 활약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그의 사상에 중대한 전환기가 찾아온다. 구미 제국에 대해 개국을 주장하던 가쓰 가이슈를 암살하러 간 그는 도리어 개국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가쓰의 논리에 감화된다. 가쓰는 개국이란 외국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의 기틀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기하는 길밖에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사카모토 료마의 가치와 교훈

일본에선 아무리 무술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올라있더라도 그를 최고의 검객이라 부르지 않았다. 특히 무사 중에서 철학적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러한 사람을 최상급 검객이라 불렀다고 한다. 사카모토 료마는 무사로 시작해 말단에 불과했지만 막부 혼란기에 삿초동맹을 주선하고 막부의 통치를 종식시키는 대정봉환을 성사시켜 메이지 유신이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위인으로 자리잡았다.

사실 검도에서는 특별히 공헌한 것은 없을 지 모른다. 데라다야 사건에서 보듯 암살자들로부터 도망을 친데다 마지막에는 암살자의 손에 쓰러졌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성장과 정체성이 검도, 검술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어릴 적 서당에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검술이 적성이 맞아 검술 유망주로 인정을 받고 에도와 교토, 나가사키 등 일본 주요 지역으로 돌아다니며 여러 지역의 무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검술을 익히고 일본의 현실, 세상의 변화를 알고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시골 출신인 료마가 일본 개화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에도로의 검술 유학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로 치면 해외 유학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는데, 그는 에도 유학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났고, 일본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사카모토 료마가 수련했던 북진일도류 검술은 지금까지 일본 현대 검도의 원류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 무사들의 득세와 메이지 유신의 성공이 결과적으로 한일합방이라는 쓰라린 역사의 상처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던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카모토 료마와 그를 영웅화하며 일본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준 일본 국민작가 시바 료타로를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관점에서 여러 평가와 해석을 해야한다.